

# 석유산업의 이해 (II)

## 2. 석유위기후의 동향

### (1) 수요둔화에 생산감축

이란의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과 함께 닥쳐온 제2차 석유위기가 무르익으면서 OPEC은 석유가격을 대폭인상했다. 이 가격안등은 세계경제를 정체시키는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석유연료의 대체를 강화시킴으로써 1981년에는 석유수요가 감퇴하였다. 따라서 OPEC도 원유생산량을 줄여나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격인하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석유정제하에 개최된 제61회 OPEC임시총회(81. 10. 29)는 OPEC원유의 上限 목표가격 36\$/b를 포기하고 基準原油인 아라비안·라이트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하면서, 유종간 가격차를 배럴당 4달러 이내로 축소 조정한다. 이는 원유가격체계가 2년만에 34달러선으로 단일화된 것인데, 종전의 OPEC원유 상한목표는 36달러와 41달러로 통용되었었다. 당시 61회 총회의 결정은 基準原油(A/L원유)는 2달러 인상했지만 다른 OPEC원유의 가격 설정이 되는 上限目標가격 36달러선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公式價格이 인하되었다는 해석이다.

이어서 1982년 83년에도 세계석유수요가 낮아져서 1979년 이후 연속 4년째 둔화된 상태였다. 당시 스파트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중에 OPEC원유의 자유세계 점유(공급)율이 50%인 형편에서 OPEC은 82년 3월총회를 열어 회원 13국의 원유생산 上限(쿼타)을 1,750만b/d로 낮춰정한다. 83년에 들어서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원유가격을 5.5달러/배럴당 인하한 것을 계기로 선진공업국의 석유제품시세도 소프트해지자, OPEC은 동년 3월 임시총회에서 기준원유(A/L)의 公式價格을 5달러나 引下하여 29\$/b로 정했다.

이렇게 油價가 낮아지니 석유소비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다. 절약의식도 약화된다. 그래서 1984년에는 자유세계 석유수요가 4년만에 전년대비 2% "上昇"을 보여준다. 전

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으나 피크이던 79년수요에 비하면 10% 부족이었다. 즉 남아도는 석유가 아직도 많은 셈인데, 石油收入(판매대금) 확보 때문에 非OPEC측인 英國·노르웨이 등의 北海産원유가 84년 10월 잇따라 引下공세로 나왔다. 북해원유와 판매경쟁 위치에 있던 나이지리아는 어쩔 수 없이 대폭제인하에 들어간다.

결국 석유공급물량을 줄여야만 가격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理論에서 OPEC은 임시총회(84. 10)를 열어 생산쿼타를 1,600만b/d로 다시 낮추고 기준원유가격은 29\$/b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감산결정에도 불구하고 겨울시세는 호전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침 겨울이 따스해서 주요 소비국들의 石油在庫가 없어지지 않았으며 OPEC회원국들이 자국할당 생산쿼타를 지키지 않고 초과생산했기 때문이다.

롯데르담과 뉴욕·런던등의 스파트시장에서 석유제품가격이 더욱 軟化되는 가운데 동년 12월 OPEC총회는 두달만에 다시 열려 시장실세에 적응하기 위한 油種間가격차 조정에 나섰다. 즉 생산쿼타는 1,600만b/d, 기준원유가격은 29\$/b에 유지하면서 ▲輕質원유(고급)를 25센트 引下 ▲中質원유도 25센트 引下 ▲重質원유는 50센트 引上이었다. 그러나 1985년에 들어서도 기준원유인 아라비안·라이트(A/L)의 가격은 현물시장의 스파트시세가 公式價格 29달러를 밑도는 실정이었다.

### (2) 원유가격 급락 - 1986년 -

자유세계의 석유수요는 1985년에 또다시 전년대비 1.1% 감소였으며 OPEC산유량도 7.2% 낮아졌다. 이해 1월의 OPEC임시총회는 ①重質원유와 輕質원유의 가격차를 배럴당 2.40달러로 축소 ②OPEC원유의 加重平均가격을 배럴당 29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결과 성명서에는 언급치 않았지만 사실 아라비안·라이트原油를 기준원유로 하는 현기준원유 가격제도의 폐지를 검토하였던 것이다.

동년 3/4분기에 들어 멕시코가 수출가격을 배럴당 1달러 낮추고, OPEC회원국 원유수출의 7~8할은 公式價格보다 낮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더욱이 사우디의 산유량이 260만b/d로까지 대폭감축되었으나 유가회복은 어려웠다. 이에 OPEC은 7월 총회에서 重質原油를 20센트~2달러/배럴당 引下한다. 그러나 公式價格판매를 준수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8월에 산유량을 210~220만b/d로 낮출 수 밖에 없었으며 종래 노력해오던 수급조절자(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포기선언한다.

사우디는 油價制度와 판매량을 연구한후, 10월부터 이른바 넷트백가격제(Netback)를 시행한다. 즉 스에즈運河 서쪽의 원유구입자(※非中東, 歐美等)에게는 원유가격을 소비국 석유제품가격에 연계시키는 방식인데 당시 형편으로는 公式價格보다 싸게 된다는 뜻이었다. 다만 8~9월에 나이지리아에 쿠데타가 나고 이란輸出시설을 이라크가 폭격함에 따라 공급부족이 일시적으로 빚어지는 바람에 스팟트원유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무렵1985년의OPEC원유점유율(自由世界內)이40.8%로 낮아지자 그들은 공급을(세어) 확보를 중대사로 삼게된다. 회원국마다 많이 팔겠다는 연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11월 들어 UAE(아랍에미리트 聯合國)는「OPEC회원국으로서의 석유가격은 자유화 되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사우디는「가격유지를 위한 減産役을 더이상 떠맡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增産으로 돌아섰고 그동안 1,600만b/d이던 OPEC산유쿼타가 11월에 1,800만b/d를 생산한다. 다음달 12월 총회는 세계시장에서의 “공정한” OPEC세어를 확보·방위하자고 결의한다.

이처럼「가격보다도 세어확보를 중시하자」는 증산 움직임 가운데 물량이 누적되자 가격은 떨어졌다. 1986년 1월중순 美國원유·北海원유들이 先物시장에서 배럴당 20달러로 내려가니 멕시코는 일시에 4달러를 인하하고 캐나다와 소련도 할인에 나섰다. OPEC회원국들은 쿼타(생산할당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예가 적지 않은채 넷트백가격(原油 판매시 제품 가격에 슬라이딩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가 많았다.

基準原油에 근거한 여타원유 공식가격은 틀어 무너지고 OPEC각국은 판매량확보전이 되었다. 주요원유 스팟트가격이 1월초 24~25달러이던 것이 3월에 15달러로 떨어지고 특히 페르시아灣岸원유의 스팟트 가격은 7월들어 10달러선으로 주저앉았다. 반면에 산유량은 증대경향이었는데, OPEC 13국이 1월에 1,736만 배럴/하루당 생산하던것이 8월에는 2,100만 b/d에 달한다. 이로써 제품가격에 연동시키는 原油판매시세에다「세어방어」라는 판매량확보(확대)에 주력하다보니 원유가격의 폭락을 야기시킨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생산량축소에 나선다. 즉 86년 9~10월의 산유량을 2년전 84년 10월 결정수준인 1,600만b/d로 축소키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별 할당량에 대해 이라크가 동의하지 않아, 나머지 12국이 1,480만b/d를 준수키로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더로서 회원국들에게「할당량 생산은 지키면서 18달러 밑으로 판매하지 말것」을 호소했다. 여기서 사우디의 야마니石油長官이 10월에 解任되는것을 전환점으로 OPEC전략은 시장안정화에 주력한다.

즉 86년 12월총회에서, ①실상 포기했던 기준원유가격제를 부활 ②기준원유 가격을 18달러/배럴로 ③유가안정·유지를 위한 산유량 1,580만b/d(20만b/d 감축)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준원유가 종전에는 사우디産 아리비안·라이트(API 34도 내외)였으나, 이번에는 非OPEC 멕시코産 이스무스原油도 포함한 OPEC원유 7개유종의 바스켓價格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OPEC산유량은 87년 1/4분기에 1,500~1,600만b/d로서 페르시아灣岸원유의 스팟트가격도 16~17달러선으로 안정되어갔다. 그러던것이 이라크와 UAE의 收入擴大 위한 增産(3/4분기)으로 말미암아 1,900만b/d에 달해 다시 공급과잉상태를 빚었다. 당시 7년째 접어든 이란·이라크戰爭이 격화되면서 페르시아灣의 쿠웨이트유조선을 美國이 호위하는 등 介入이 시작되고 사우디에서는 王權에 대립하는 메카事件발생 그리고 전쟁당사국의 유조선공격으로 中東은 복잡했다. 87년 10월말 美國이 이란에 대해 全面收入禁止, 일부수출금지를 실시하자 이란이 美國에 팔던 약29만b/d의 원유물량이 다른쪽으로 할인판매 됨으로써 스팟트市場이 軟化되고 있었다.

### (3) 시장변화와 메이저동향

1970년대에는 OPEC산유국들이 메이저의 產油段階에의 경영참여 내지는 國有化조치를 급진전 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석유시장 및 그때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석유메이저가 변화를 일으킨다. 메이저가 원유생산부터 수송·정제·판매까지 지배하는 이른바 上流로부터 下流까지의 일관조업 체제가 붕괴된다. 이제 산유국자체가 원유생산단계를 좌우하게 되니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인다. 아울러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사이를 中介하는 트레이더(Trader)가 출현하고, 現物市場의 스팟트去來(非長期契約) 원유가 확대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석유도 종전과 달리 일반 상품화되어 1983년에는 英國런던과 美國 뉴욕의 선물시장에서 드디어 原油도 취급하게 된다. 특히 뉴욕상품거래소(NYMEX)는 美國産 웨스트-텍사스-인터미디이트(WTI)原油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986년에는 WTI원유의 실제생산량 80만b/d를 월

싼 넘어서는 2,300만b/d가 거래될 정도였다.

先物去來는 헛정 (=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책)과 투기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실제물건(석유류)의 매매행위 즉 물량 이동이 아니라 이른바 페이퍼(종이·서류)거래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서류만의 거래가격은 몇번 수십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實物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변화는 메이저戰略에 변화를 가져왔다. OPEC산유국의 국유화사태로 상류부문의 상당량을 잃어버린데다, 석유수요마저 격감되어 하류부문에서도 잉여폭이 커진 메이저들은 근본적 생존전략을 짜낸다. 모두들 제2차 석유위기 직후부터 추진하던 新에너지 및 非石油사업을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동시에 잉여된 정제시설 및 판매설비를 합리화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걸프社와 세브론社는 유럽시장(하류부문)을 떠난다. 또한 OPEC 각국 때문에 원유매장량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메이저는 매장량확보를 위해 北美쪽과 北海중심의 非 OPEC지역 해역을 탐사·개발하기에 힘썼다. 이런 흐름속에서 美國석유업계는 믿어지지 않는 大型買收와 합병이 이루어진다.

즉 1981년 화학공업계인 듀폰社가 석유산업 코노코社를 인수하고 1982년에는 철강업인 유에스·스틸社가 마라톤 오일社를 사들였다. 이어서 84년에 들어서는 초대형 합병으로 발전하는데, 1월에 텍사코社가 게티·오일을 101억 달러로 買收한다. 3월에는 세브론社가 걸프社를 132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 가격으로 買收한다. 이해에는 또 셸社가 중전 69% 소유하고 있던 「美國셸社」의 주식을 100%買收

하는가 하면 모빌社가 슈페리어·오일社를 買收한다. 3년 후인 1987년에도 BP社가 종래 55% 소유하던 「美國스탠다드·오일社」=舊各 소하이오社의 주식을 100% 買收한다. 이러한 대형買收합병사태는 매수 대상회사가 보유한 石油·가스매장량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코社는 게티·오일社 買收에 성공했으나 후일에, 마찬가지로 게티買收에 나섰던 펜즈오일社로부터 매수과정상 不正여부로 피소된다. 텍사스주 법원은 85년말 피고에게 112억달러 지불명령을 판결한다.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87년 2월 언도는 텍사코社에게 91억달러를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불복 다시 텍사스주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역시 87년 11월 기각되고 만다.

국제석유시장의 변모양상은 유럽에도 나타난다. 메이저들이 철수한 뒤 쿠웨이트가 하류부문에 들어서서 「Q8」이라는 상표로 여러나라에 뿌리를 내린다. 또한 유럽 여러곳에 OPEC이 건설 또는 지분참여한 정유공장이 돌아가게 되며, 대규모 석유제품이 OPEC으로부터 석유소비국으로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소비국 정유업체, 非產油國 정유공장들은 OPEC의 하류참여를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PEC자본이 소비국 정유산업 내지 개발석유산업에도 침입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세계 주요 석유회사

#### (1) OPEC와 메이저로 2元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절약

〈표-1〉 OPEC의 해외정제능력 (1990년말)

(단위: 천 B/D)

	지 분 소 유			공 급 협 정		
	西 유 럽	美 國	計	西 유 럽	美 國	計
알 제 리	-	-	-	-	-	-
에 과 도 르	-	-	-	-	-	-
가 보	-	-	-	-	-	-
인 도 네 시 아	-	-	-	-	-	-
이 라 크	-	-	-	-	-	-
쿠 웨 이 트	260.2	-	260.2	260.2	-	260.2
리 비 아	231.3	-	231.3	383.0	-	383.0
나 이 지 리 아	58.8	27.7	86.5	58.8	56.5	115.3
카 타 르	-	-	-	-	-	-
사 우 디 아	-	307.5	307.5	-	550.0	550.0
U A E	87.6	-	87.6	112.8	-	112.8
베 네 수 엘 라	178.0	618.5	796.5	220.0	680.0	900.0
計	815.9	953.7	1,769.6	1,034.8	1,286.5	2,321.3
정제능력점유율(%)	5.48	6.12	5.8	6.95	8.25	7.61

OPEC REVIEW (Autum 1991), The Role of OPEC refineries in meeting European demand.

〈표-2〉 세계 석유취급 선물시장 (1990년)

시 장/품 목	상장년도	거래단위	거 래 시 간	인 수 도 지 점	만기월(최장)
NYMEX(뉴욕)			(현지시간)		
WTI 원유	1983	천배럴	9:45-15:10	Cushing, Okl	18개월 선물
Heating Oil	1978	"	9:50-15:10	뉴욕항	"
Unl. Gasoline	1981	"	"	"	"
Propane	1987	"	9:15-15:00	Mont Belvieu, Tex	15개월 선물
Natural Gas	1990.4	백만 BTU	9:20-15:10	Henry Hub, Louis	12개월 선물
SIMEX(싱가포르)					
Dubal 원유	1990.6	천배럴	9:30-18:30	Dubal Feteah 항	12개월 선물
Heavy Fuel Oil	1989	100 톤	8:00-17:30	싱가폴항	6개월 선물
Gas Oil	1991.6	천배럴	9:25-18:25	"	"
IPE (런던)					
Brent 원유	1985	천배럴	9:30-20:00	ARA(알스테르담	
Dubal 원유	1990.6	"	"	로테르담	
Gas Oil	1987	"	"	안트워프)	
Heavy Fuel Oil	1986	"	"		
Unl. Gasoline	1986	"	"		
Naphtha	1991.4	"	"		
Roefex(로테르담)					
Brent 원유	1989	천배럴	10:00-18:30	로테르담	18개월 선물
Gas Oil	1989	100 톤			
Heating Oil	1989	100 톤			

NYMEX, 에너지 동향 및 국내 선물경제

무드로 인한 수요감퇴와 OPEC의 석유수입확대를 향한 증산에 영향을 받아 油價는 軟化되고 석유개발투자는 종전보다 축소되는 가운데 매장량확보를 위한 석유회사 買收합병, 그리고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 등으로 석유시장은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OPEC회원국의 국영석유회사 중심으로 상류·하류부문이 통합되는 추세여서 현재 세계 석유 산업은 產油國(OPEC)과 메이저로 2元化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산유국은 상류(탐사·개발·생산부문)에서 놓고 메이저는 하류(정제·판매)에서 우세하지만 산유국의 도전이 점차 심화된다. 소련도 80년대에는 최대산유국이었으나 CIS 체제 이후는 저조하다.

■상류부문-사우디의 아람코社가 1위로서 2,579억배럴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하는데 석유생산량도 하루당 628만배럴에 달해 세계 최고수준이다. 다음은 이란의 NIOC 국영회사가 매장량 1,000억배럴, 3위는 쿠웨이트 KPC社 970억배럴, 4위는 이라크의 INOC社 929억배럴 등이다. 세계 매장량은 1조92억배럴로서 OPEC13국의 확인 매장량이 77%나 차지한다.

다음에 원유 생산량에서 ①아람코 628만b/d ②NIOC 318만b/d ③Pemex 297만 b/d(멕시코) ④PDV(베네수엘라) 213만b/d ⑤INOC 212만b/d 등의 순이다. 세계 총생산량은 6,487만b/d(1990년 실적, BP통계)로서 이 중 OPEC이 38%

를 차지하는데 국가별 1위는 舊소련(CIS) 1,170만b/d=18%에 상당한다.

메이저급의 생산량은 ▲셀社 189만b/d ▲엑슨社 171만b/d ▲BP社 132만b/d ▲셰브론 93.5만 b/d 등이다.

■하류부문-상기한 석유매장 및 생산은 기업의 본국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 소재한 유전분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정제능력도 외국소재분을 포함한다.

하류부문은 메이저가 우위이나, 베네수엘라의 PDV사/사우디의 아람코社/이란의 NIOC社 등 OPEC국영회사가 발전적이다. 그러나 국영석유회사의 약점은 제품판매율(석유류 판매량/정제능력)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90년도 제품판매율은 PDV사 73%/아람코社 72%/Pemex社 80%였다. 이에 비해 메이저들의 제품판매율은 대부분 100%를 상회함으로써 위탁정제량도 적지 않았다.

정제능력을 회사별로 보면 (단위: 천b/d) ①셀社 5,476 ②엑슨社 4,061 ③PDV 2,298 ④셰브론社 2,154 ⑤아람코社 2,113 ⑥모빌社 2,069 ⑦BP社 2,053 ⑧Pemex 1,679 ⑨Petrobras社(브라질) 1,466 ⑩Texaco 1,448 등이다. (자료: PIW'91.12.23에서) OPEC중 하류부문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진 것은 쿠웨이트/리비아/나이지리아/사우디/UAE/베네수엘라 등이다. 株式持分 기준으로 OPEC의 해외정제능력 90년현황은 177만b/d로서 이중 46%가 유럽 지역에, 54%는 美國지역에 소재한다.

이란은 캐나다/그리스/포르투갈/인도네시아/파키스탄/타일랜드 진출에 적극적이며 루마니아와 정제협정을 맺었다. 동유럽에는 최초의 진출자 이란 이외에도 쿠웨이트가 활발한데 헝가리와 정유산업 현대화協定 및 석유제품 판매협정을 맺었다. 리비아는 그리스에 정유공장持分을 갖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프랑스의 엘프·아끼메느社와 정제 및 판매협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사우디는 西유럽과 극동지역에서 합작사업을 추진중이며 韓國에는 쌍용정유(주)에 합작투자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독일 슈벡트정유공장持分 37.5% 취득등 유럽쪽에 적극적이다. OPEC의 하류부문 진출 기대효과는 산유국으로서 판로보장이 된다는 점이고, 소비국으로서는 원유공급이 안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심한 소비국의 경우는 안정공급면이 강조되는 동시에 공급자인 산유국의 정책의지가 많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

국들은 自國下流部門을 개방하는 대가로 產油國의 上流部門에 진출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세븐·시스터즈와 사우디 아람코

포춘誌가 매년 발표하는 美國내 거대 기업순위(총매출기준)을 보면 91년 실적 10위 까지에서 석유회사(메이저)가 4개나 들어있다.

▲엑슨社 2위로서 1,032억 4,200만달러

▲모빌社 6위 569억 1천만달러

▲텍사코社 9위 375억 5,100만달러

▲세브론社 10위 367억 9,500만달러

이들 4개사는 그 전년도 90년에도 모두들 10위 이내로서 엑슨(Exxon)社는 1위의 자동차 회사인 GM社총매출 1,237억 8,000만 달러와 겨우 205만달러의 차이이다. 그리고 10위

〈표-3〉 상류부문 15대 石油 기업의 경제지표

기업명	순 위		석유매장량 및 순위		석유생산량 및 순위		가채년수
	1990	1989	매장량(백만배럴)	순 위	생산량(천b/d)	순 위	
Aramco (사우디)	1	1	257,900	1	6,279	1	113
NIOC (이란)	2	3	92,850	2	3,183	4	80
INOC (이라크)	3	2	100,000	5	2,125	2	129
PDV (베네수엘라)	4	5	60,054	4	2,135	6	77
Pemex (멕시코)	5	4	51,298	3	2,974	7	47
KPC (쿠웨이트)	6	6	97,025	12	1,042	3	255
Adnoc (UAE)	7	8	64,541	10	1,128	5	157
RD/Shell (영국)	8	7	10,107	6	1,890	19	15
NNPC	9	10	11,872	9	1,199	9	27
Exxon (미국)	10	9	7,150	7	1,712	13	11
Libya NOC (리비아)	11	11	20,643	13	1,041	8	54
Sonatrach (알제리)	12	12	9,200	11	1,063	11	24
BP (영국)	13	11	6,730	8	1,322	16	14
Chevron (미국)	14	15	3,241	14	935	18	9
Pertamina (인도네시아)	14	14	6,284	18	761	14	23

〈자료〉 PIW ('91.12.23). Special Supplement Issue

〈표-4〉 美國 메이저 경영실적

(단위 : 10만불)

	1991 4/4분기	1990 4/4분기	증 감 륜(%)
Amoco Corp	153,000	538,000	-72
Atlantic Richfield	268,000	566,000	-53
Chevron Corp	39,000	633,000	-94
Exxon Corp	1,120,000	1,555,000	-28
Mobil Corp	401,000	652,000	-38
Phillips Petroleum	79,000	237,000	-67
Sun co	-35,000	18,000	...
Texaco Inc	324,000	388,000	-16
Unocal Corp	-16,000	38,000	...
USX-Marathon Group	-229,000	216,000	...
計	2,104,000	4,841,000	-57

권내 기업중 순이익이赤字를 내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엑슨 뿐이었다.

石油메이저라 부르는 거대국제기업이라면 상기 4개사 이외에 英國의 BP社, 英國과 네덜란드 合作인 로얄·더치·셸社,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社를 꼽는다. 이들 7개사를 뉴·세븐·시스터즈(新七姉妹)라 칭할수 있겠다. 종전의 7자매라면 엑슨/모빌/BP/로얄더치셸/텍사코/소칼/걸프社였다. 이 중 걸프(Gulf)가 1984년 3월 소칼(Socal =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에게買收당해 없어지고 소칼社는 7월부터社名을 셰브론(Chevron Corp.)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걸프 대신에 아람코社가 즉,歐美 대신에 中東 OPEC국이 한자리 차지한 것이다.

메이저라면 당연히 上·下流 모두 우세해야 하는데 아람코社는 확인매장량 1위, 석유생산량 1위이며 정제능력면에서도 211.3만b/d로 5위, 석유제품 판매량에서도 152만b/d로 8위에 랭크되니 분명 메이저이다. 그런데 이 아람코는社名을 앞에 Saudi를 붙여「사우디 아람코」라 하는데, 종전의 美國系메이저 4개사가 소유하던 Aramco에 비교해 사우디가 100% 소유하게 된 新아람코라는 뜻이다.

소련을 제외한 세계최대산유국인 사우디는 Saudi Aramco 이외에 또하나의 국영회사 SAMAREC社를 만들어 정제와 판매를 경영하고 있다. SAMAREC은 세계 LPG 공급 및 가격에도 중요한 회사이다. 91년 12월에는 기존의 LPG 기간 계약방식인 告示價格(GEP = Government Establishd Price)제도를 폐지하고 92년부터 새로운 SP = SAMAREC Price를 실시했다. SP는 LPG가격을 原油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前月 A/L원유 기간계약가격 × 열량 환산계수 × 90%이다. (\*열량환산계수 = 프로판 = 8.198, 부탄 = 8.088) 사우디의 LPG 海上거래량은 전세계 海上거래량 2,400만톤/年の 절반이상인 1,300만톤에 달한다.

여기서 아람코와 메이저 관계를 일별해보자. 유명한 재벌 록펠러氏가 美國에서 스탠다드·오일·트러스트를 세우고 (\*EXX에도 이 트러스트의 1分枝로 설립된 스탠다드石油(뉴저지州)가 발전한 것이다.) 그중의 하나인 아이오와·스탠다드社와 Pacific Coast Co. 社의 합병으로 1906년 Socal社를 설립한다. 소칼은 美國서부지역을 근거하다가 전국에 확산되고 수마트라/자바/브레인/사우디 등 海外利權에 나섰다. 1933년 최대해운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石油利權을 획득, 석유개발과 생산을 위해 同年 美國 델라웨어州에 다 캘리포니아·아라비안·스탠다드石油社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석유메이저로 성장한다.

中東에서 얻은 거대석유자원을 나누어 팔고싶은 Socal은 1936년 美國메이저(후보) 텍사코社와 협정을 체결한 바, 中東과 東印度諸島の 석유이권중 50%를 텍사코에게 할양

하고 그대신 텍사코所有의 지구동반구 석유판매망의 50%를 양도받는다. 또 兩社는 同年에 50대 50의 투자로 칼텍스社(Caltex = California Texas Oil Co.)를 설립, 양사의 동반구지역의 판매사업을 맡긴다. 칼텍스는 韓國의 럭키그룹과 합작투자하여 湖南精油(주)를 설립(1967년)하여 69년 4월부터 석유제품을 판매한다.

한편 사우디유전을 개발하는 캘리포니아·아라비안·스탠다드石油社는 1944년 Aramco(Arabian American Oil Co.)로 개칭된 후 1948년 美國系 Exxon社 및 Mobil社가 지분 참여 함으로써 Socal과 Texaco를 포함한 4대메이저가 소유한 좀 특별한 기업이었다. 그 아람코社가 中東·OPEC의 자원내셔널리즘氣流에 따라 1980년 사우디政府가 資産100% 접수하여, 탐사·개발·생산작업은 종전 4개사에게 그대로 맡긴채 Saudi Aramco로 개칭하게 된 것이었다. 이 와중에서 아람코 석유자산-매장량이 국유화 되어 없어지자 Socal은 매장량확보를 위해 Gulf를 매입한 것이다.

그 이외의 상류부문 주요회사는 앞서의 <표-3>에 나타난 15대기업의 명단과 경제지표로 알 수 있다. 그리고 下流部門의 1990년 15대기업은 다음과 같다.

- ① RD/Shell = 英國·네덜란드 : 정제능력 547.6만b/d(이하 정제능력 표기생략)
- ② Exxon = 美國, 406.1만b/d
- ③ PDV = 베네수엘라, 229.8만b/d
- ④ BP = 英國, 205.3만b/d
- ⑤ Chevron = 美國, 215.4만b/d
- ⑥ Mobil = 美國, 206.9만b/d
- ⑦ Saudi Aramco = 사우디, 211.3만b/d
- ⑧ Texaco = 美國, 144.8만b/d
- ⑨ Pemex = 멕시코, 167.9만b/d
- ⑩ Amoco = 美國, 98.4만b/d
- ⑪ Petrobras = 브라질, 146.6만b/d
- ⑫ Total = 프랑스, 98.4만b/d
- ⑬ NIOC = 이란, 76.6만b/d
- ⑭ ENI = 이탈리아, 71.7만b/d
- ⑮ KPC = 쿠웨이트, 90.2만b/d

(註 : 3위가 넷인것은 경영규모가 비슷한 때문이며, 자료는 PIW誌 91.12.23 특별판에서)

以上에서 언급한 기업 이외에도 中國과 소련(CIS)의 석유회사들이 日本과 함께 적지않은 시장영향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上·下流部門 1관조업회사로 중시되는 석유기업 가운데는 ▲프랑스의 엘프 아끼메느社(Societe Elf Aguitaine)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社(PERTAMINA) ▲캐나다의 페트로·캐나다社(Petro-Canada) ▲독일의 웨바社(VEVA AG) 등이 포함된다. (계속 : 金鍾七)